

소재부품산업의 對日 수입의존도 개선 요인과 무역불균형 구조 변화 고찰

2016. 12. 16

이 흥 배

hbleesoka@deu.ac.kr



목 차

- I. 연구의 개요
- II. 對日 수입의존도 개선 요인 분석
 - 기술력 측면:
 - 교역구조 측면:
 - 환율변동 측면:
- III. 개선 요인별 기여도
- IV. 시사점 및 향후 정책방향

연구의 개요

- 본 연구는 국내 소재부품산업의 對日 수입의존도 개선 및 對日 무역불균형 축소 현상을 다양한 분석방법을 도입, 실증분석하여 원인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둠.
- 또한 본 연구는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 소재부품산업의 향후 對日 무역흑자 전환 및 2000억불 흑자 달성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향을 모색함.
- 분석방법: 국제산업연관모형, 국제기술분업도지수모형, 무역경쟁력지수, 금융시계열모형 등 도입

소재부품산업의 수출입 현황과 특징

- 2015년 대세계 무역흑자 1,050억 달러 기록
- 2001년대비 대세계 무역흑자 규모 약 37배 확대
- 국내 생산(43%), 고용(50%), 수출(50%), 수입(37%) 비중 차지

<표 1> 한국 소재부품의 대세계 수출입 현황과 무역수지 (억 달러, %)

구 분		2001년	2006년	2009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소재부품 (A)	수 출	620	1,487	1,710	2,534	2,630	2,759	2,646
	수 입	592	1,140	1,197	1,625	1,665	1,682	1,596
	무역수지	28	347	512	909	975	1,078	1,050
전산업 (B)	수 출	1,504	3,255	3,635	5,479	5,596	5,727	5,269
	수 입	1,411	3,094	3,231	5,196	5,156	5,255	4,365
	무역수지	93	161	404	283	440	472	904
비중 (A/B)	수 출	41.2	45.7	47.0	46.2	47.0	48.2	50.2
	수 입	42.0	36.8	37.0	31.3	32.3	32.0	36.6

자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KOAMI DB.

소재부품산업의 수출입 현황과 특징

- 2011년을 정점으로 對日 적자규모 감소 추이 지속
- 2015년 142억 달러 적자 기록하면서 03년(-139억 달러) 수준으로 회귀
- 한일간 수출입 규모는 2014년 이후 현저히 감소
- 단순한 교역규모 감소에 따른 적자규모 축소? 아니면...어떠한 요인?

<표 2> 한국 소재부품의 對日 수출입 현황과 특징 (억 달러, %)

구분	2001년	2005년	2009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수출	62 (10.0)	113 (9.1)	102 (6.0)	169 (6.6)	152 (6.0)	139 (5.3)	141 (5.1)	122 (4.6)
수입	165 (27.8)	274 (27.1)	303 (25.3)	397 (23.6)	374 (23.0)	344 (20.8)	305 (18.1)	264 (16.5)
무역수지	-103	-161	-201	-228	-222	-205	-164	-142

자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KOAMI DB.

對日 수입의존도 개선 요인분석: 기술력 측면

- 2000~13년 對日 수입의존도는 전 품목에서 크게 개선(00년 11.9%→13년 8.1%)
- 특히 전기·전자부품의 對日 의존도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
- 한편 일본의 對韓 수입의존도 꾸준히 상승(동 1.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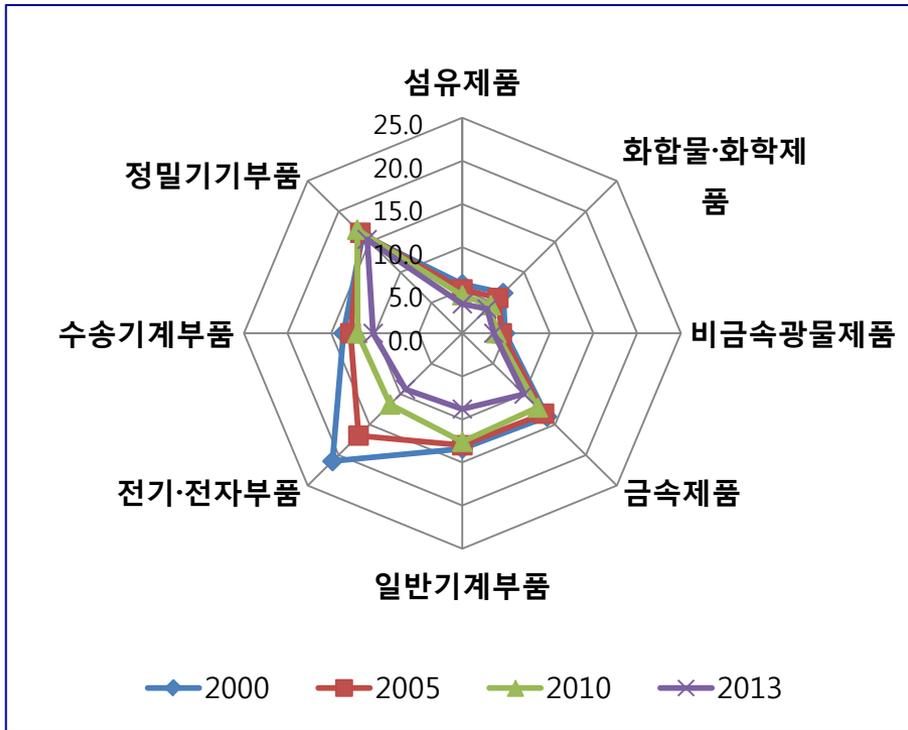
<표 3> 한일 소재부품의 상대국에 대한 수입의존도 변화 (%)

	한 국				일 본			
	2000	2005	2010	2013	2000	2005	2010	2013
섬유제품	5.7	5.1	4.4	3.4	1.3	1.2	0.9	1.2
화합물·화학제품	6.6	5.8	4.6	4.0	1.2	1.0	0.8	1.2
비금속광물제품	4.9	4.5	3.9	3.6	0.6	0.5	0.5	0.6
금속제품	13.7	13.2	12.2	10.0	1.3	1.4	1.7	2.8
일반기계부품	13.4	13.0	12.6	8.8	0.9	1.2	1.8	3.0
전기·전자부품	21.0	16.8	11.7	9.2	2.0	1.7	1.8	2.9
수송기계부품	13.6	12.8	12.0	10.2	0.8	1.0	1.4	2.0
정밀기계부품	16.1	16.5	17.0	15.4	1.3	1.4	1.6	2.0
평균	11.9	11.0	9.8	8.1	1.2	1.2	1.3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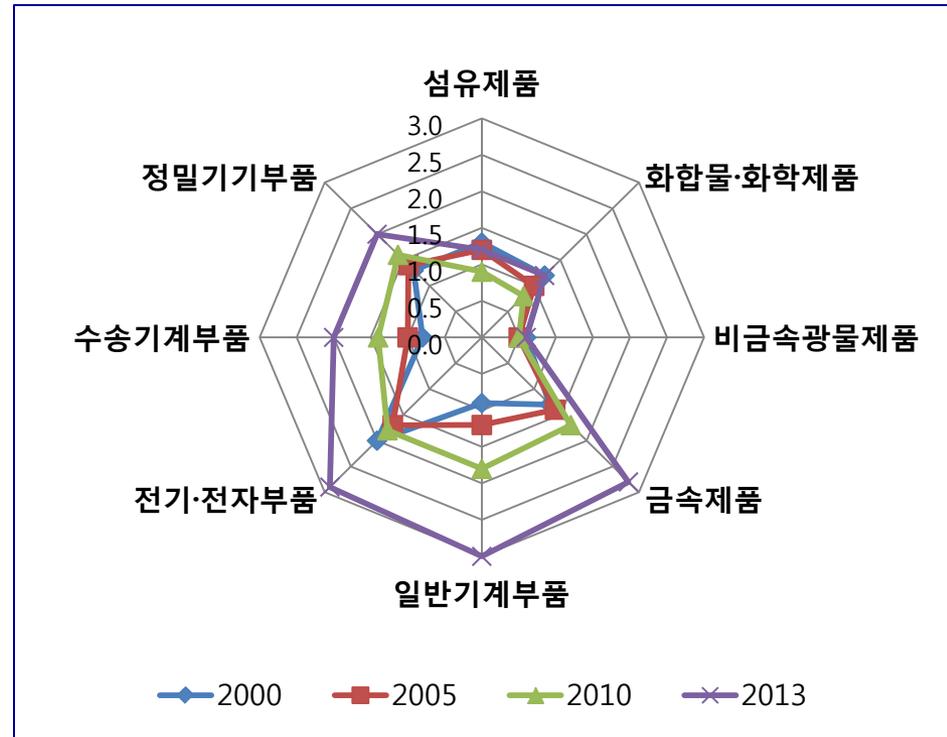
對日 수입의존도 개선 요인분석: 기술력 측면

<그림 1> 한일 소재부품의 상대국에 대한 수입의존도 변화 (%)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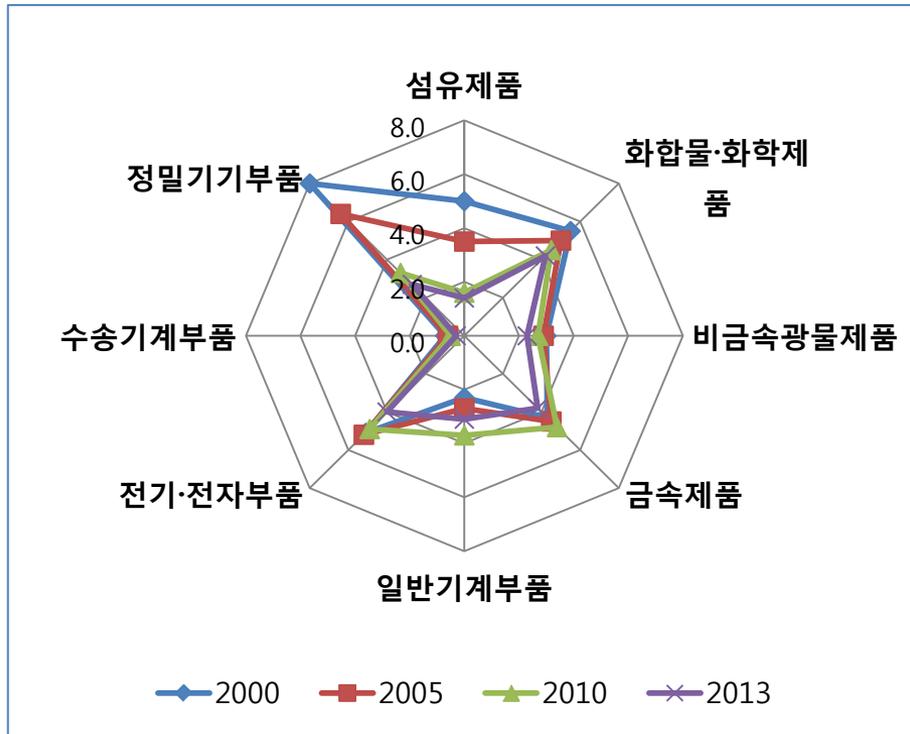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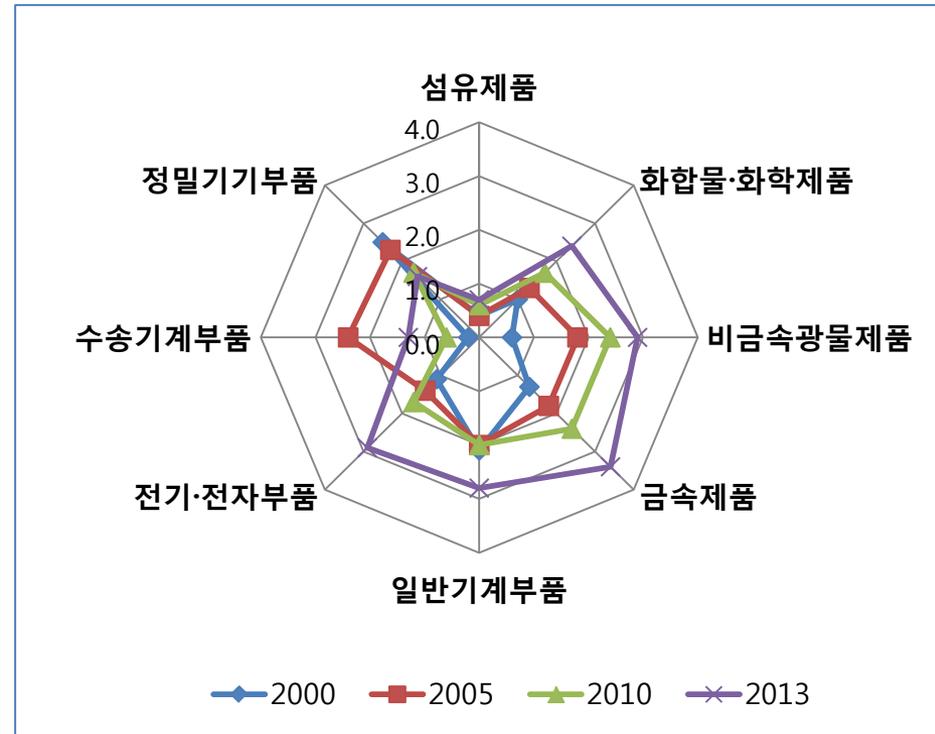
對日 수입의존도 개선 요인분석: 기술력 측면

<그림 2> 한일간 소재부품의 상대국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유발의존도 변화 (%)

한국



일본



對日 수입의존도 개선 요인분석: 기술력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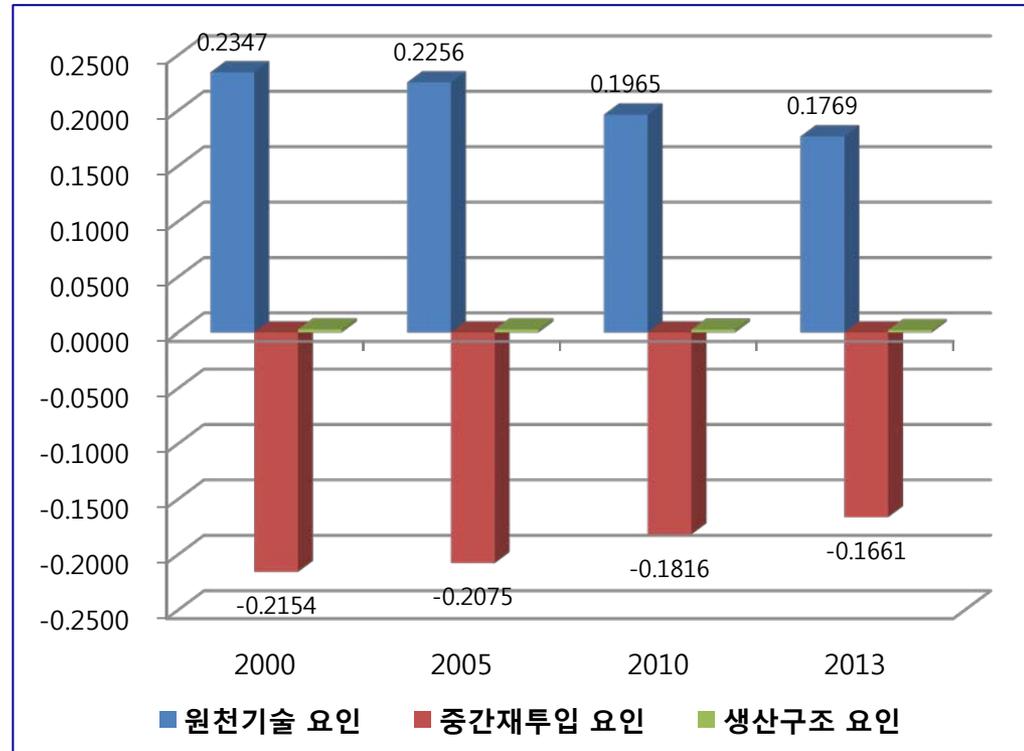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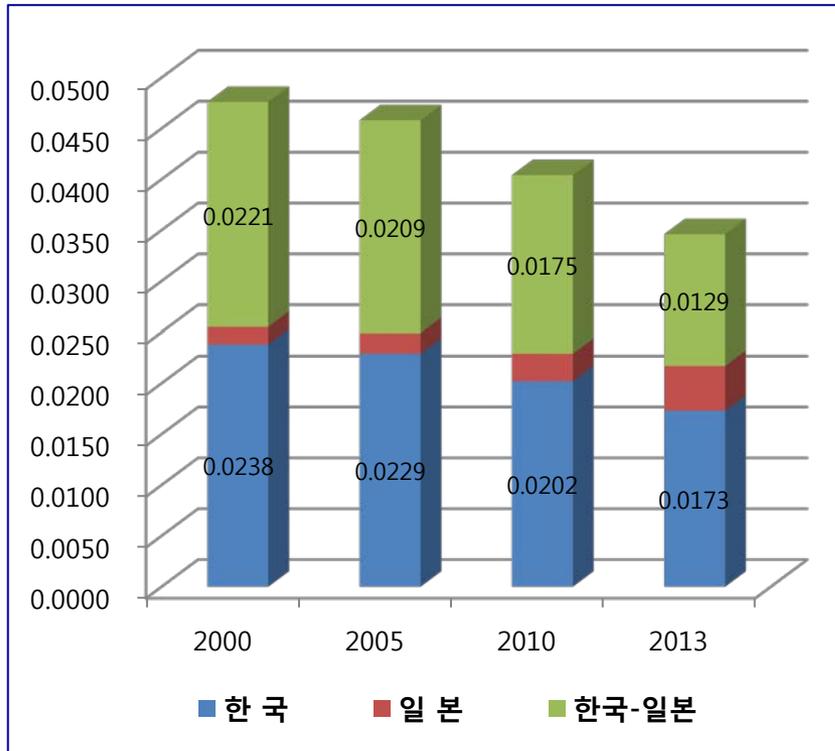
- 최근의 對日 수입의존도 개선 원인은, 국내 소재부품의 對日 원천기술력 향상과 이에 따른 對日 중간재 투입 둔화 요인에 기인
- 한일간 소재부품의 기술격차는 한국의 對日 의존도 감소세와 일본의 對韓 의존도 상승세로 인해 지속적으로 개선
- 특히 2010년 이후 對日 기술격차 개선 폭은 확대 추세(00년 0.0221 → 05년 0.0209 → 10년 0.0175 → 13년 0.0129)

<표 4> 소재부품산업의 對日 수입의존도 개선 요인 분석결과

연도	생산기술수준(수입의존도) 차이			對日 생산기술수준(수입의존도) 변화 요인		
			수준차이	원천기술 요인	중간재투입 요인	생산구조 요인
	한 국	일 본	한국-일본			
2000	0.0238	0.0017	0.0221	0.2362	-0.2169	0.0028
2005	0.0229	0.0020	0.0209	0.2239	-0.2058	0.0028
2010	0.0202	0.0027	0.0175	0.1976	-0.1827	0.0026
2013	0.0173	0.0044	0.0129	0.1755	-0.1647	0.0021

對日 수입의존도 개선 요인분석: 기술력 측면

<그림 3> 국내 소재부품의 對日 수입의존도 개선 요인 분석결과 (%)



對日 수입의존도 개선 요인분석: 교역구조 측면

- 국내 소재부품산업의 대세계 및 對日 무역경쟁력 수준과 변화를 고려하여, 對日 수입의존도 감소 추세와 원인을 분석
- 2000~2014년 소재부품의 대세계 경쟁력 향상과 이에 따른 비교우위 강화는 2010년 이후 대세계 무역흑자 확대에 크게 기여(00년 0.06 → 14년 0.24)
- 이는 수입전환과 수입대체 효과를 유발하면서 對日 수입의존도 감소 및 무역불균형 개선 원인으로 작용
 - 동 기간 對日 무역경쟁력은 낮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경쟁력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2010년 이후 개선 폭이 확대
 - 2010년 이후 부품의 경우, 對日 수입은 감소한 반면, 대EU, 대중국 수입은 증가세를 보여, 부품의 수입전환 요인이 작용

對日 수입의존도 개선 요인분석: 환율변동 측면

- 구조VAR 모형을 도입하여 對日 수입의존도 감소(증가) 추세의 특징과 원인을 분석
- (가격기준) 엔화대비 원화절상의 對日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0.2093으로 나타나, 소재부품의 對日 수입을 증대시킴

<표 5> 엔화대비 원화절상이 소재부품의 對日 수입에 미치는 영향(가격기준)

	추정치	통계적 유의성
성유제품	0.4027	유의성 존재
화합물 및 화학제품	0.2863	유의성 존재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0.1660	유의성 비존재
비금속광물	0.1171	유의성 비존재
제1차금속	0.4336	유의성 존재
조립금속제품	0.6035	유의성 존재
일반기계부품	0.1802	유의성 비존재
컴퓨터 및 사무기기부품	0.1783	유의성 비존재
전기기계부품	-0.0015	유의성 비존재
전자, 영상, 음향, 통신기기부품	0.3449	유의성 존재
정밀기기부품	0.0997	유의성 비존재
수송기계부품	0.1755	유의성 비존재

對日 수입의존도 개선 요인분석: 환율변동 측면

- (물량기준) 엔화대비 원화절상의 對日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0.5355로 나타나, 소재부품의 對日 수입을 증가시킴
- 가격·물량기준 모두 소재부품의 對日 수입은 엔화대비 원화절상에 일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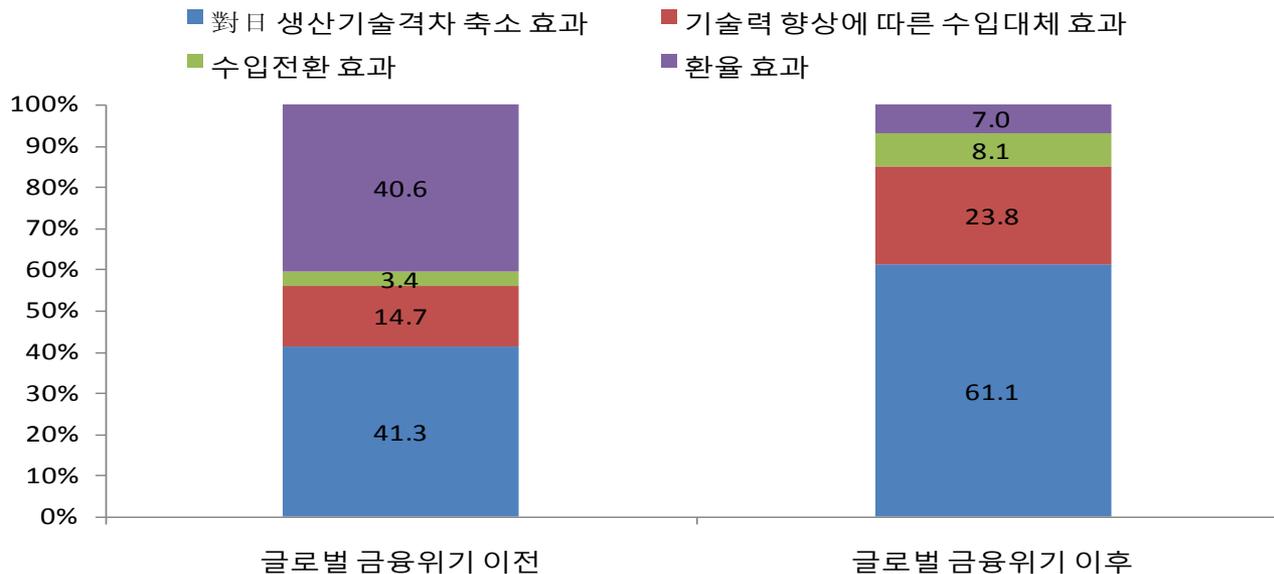
<표 6> 엔화대비 원화절상이 對日 수입에 미치는 영향(물량기준)

	추정치	통계적 유의성
섬유제품	0.5071	유의성 존재
화합물 및 화학제품	0.2059	유의성 존재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0.3497	유의성 비존재
비금속광물	0.5230	유의성 존재
제1차금속	0.5924	유의성 존재
조립금속제품	0.5830	유의성 존재
일반기계부품	0.3879	유의성 존재
컴퓨터 및 사무기기부품	0.2570	유의성 비존재
전기기계부품	-0.0702	유의성 비존재
전자, 영상, 음향, 통신기기부품	0.6191	유의성 존재
정밀기기부품	-0.1679	유의성 비존재
수송기계부품	0.5827	유의성 존재

개선 요인별 기여도 분석

- 원화절상에도 소재부품의 對日 수입의존도가 개선되고 있는데는,
 - 원천기술 향상에 따른 對日 기술격차 축소(약 61%),
 - 기술력·경쟁력 제고에 따른 수입대체 및 수입전환 효과 유발(약 32%) 영향이 큼
 - 환율변동 요인은 7.0%에 그침

<그림 4> 소재부품의 對日 수입의존도 개선의 요인별 기여도(%)



시사점 및 향후 정책방향

- 분석결과, 국내 소재부품산업의 對日 수입의존도 개선은 환율변동(엔화대비 원화절상)에 일정부분 영향 받았으나,
- 국내 소재부품의 지속적인 對日 기술격차 축소(원천기술 향상) 및 대세계 경쟁력 제고에 따른 수입대체 및 수입전환 효과에 기인하는바 큼
- 특히 소재부품의 對日 수입의존도 개선은 對日 무역적자 폭 축소에 크게 기여
- 최근의 對日 수입의존도 개선은 對日 캐치업 요인과 글로벌 환경 변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시사점 및 향후 정책방향

- 향후 정책방향은, 지속적인 對日 기술력 향상 ⇒ 對日 무역역조 해소 및 대세계 수출 확대 ⇒ 무역흑자 2000억불 달성 ⇒ 지속 가능한 성장패러다임 확보에 초점
- **세부방안**으로는,
 - 국내 소재부품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집약시스템 구축
 - 대기업·중소기업간의 새로운 협력 프레임 강화
 - 일본 소재부품 관련 기업의 국내 글로벌거점 전략 강화
 - 수출시장의 다양성에 부합하는 전략 확보
 - 차별화된 수출품목 다변화 노력 필요
 - ASEAN 등 신흥국시장에 대한 수출 공략 체계화

감사합니다